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30호

발행일 : 2018 .10 .7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저를 중생되어 여기시며
기다려 주시고

이런 사랑주시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글쎄 맘아주신 주님 말씀 표



저 또한 가문의 축복의 영도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 가게됩니다.



안녕 하세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신애 성도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모든 성도 앞에 펼쳐 보인다는 것이 많이 쑥스럽습니다. 또 아직은 특별한 이야기 거리가 많지 않아 나눌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포 마송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목회하시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면 늘 목회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저는 교회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쯤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 늘 행동과 말을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목회자 자녀인 저를 칭찬 해 주시기도 했지만 칭찬 뒤에 모든 행동들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그랬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니까 모든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주변 시선들은 어린 제 마음을 고통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또 저에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가 내게 채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강해진 생각이 스스로를 억눌렀고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착한 콤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적절하게 거절 하지 못했고 실패와 실수가 두려워 앞에 나서서 무엇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도전은 실패와 실수라는 두려움에 나 자신을 감춰 버리고 싶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민해 지고 그것을 부모님께 짜증으로 풀기도 하고 스스로 이겨보려 발버둥도 쳐 봤지만 자꾸 위축되어져 갔고 이제 점점 조용한 말없는 삶을 살기 시작 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마다 너무 싫었고 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싫어지면서 원망에 감정들은 폭포수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봉사 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 습관처럼 안하면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싫어 빨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버티며 생활하다 직장 문제로 독립 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를 빠뜨려가면서 가졌던 알 수 없는 설레임은 자꾸만 그곳을 동경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내 걸음걸음은 그곳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짧은 독립이었지만 그 생활은 육체만 덩그러니 갖다 놓았던 신앙의 연결고리마저 주저 없이 끊어 놓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고 수요 예배나 주일 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점 주님을 잃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보내던 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선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으셨지요. 대학교 동기언니를 만나게 하였고 그 언니를 통해 집 근처 강화교육청 wee센터에 재취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본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회복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에 예배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멜**처럼 어떻게든 다시 서울로 나가고자 애썼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려 노력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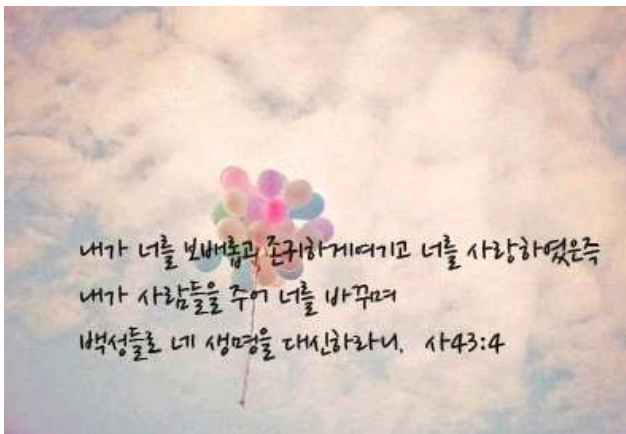
하지만 제가 계획한 것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의 욕심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길을 주님께서 막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떠났던 부정한 여인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온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저를 포기 하지 않으시고 선민 삼으시기에 다시 데려다 앉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청 기간제를 마치고 교회 부설 아동센터로 자리를 옮겨 일을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사춘기를 심하게 앓던 아이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반항적인 모습과 분노와 두려움들은 많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더 뜻을 두고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모님 지인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당진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너무나 낯설었고 적응하는 것이 내 성향과 맞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뜰하게 살피시며 항상 근심과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남편의 도움으로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 식구분들의 사랑은 닫힌 입을 열어 때로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도, 또 때로는 수다쟁이처럼 속마음을 털어 놓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와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친청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았던 생활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며 완벽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를 충성되이 여기시며 기다려 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 또한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성도 알아가기.

하나님께
충성하여
너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때
천사님의 소망이
두 안에서 열매맺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알아보기

-박순남 권사-

1. 자기 소개 멋지게 부탁 드려요.

당진순복음교회의 23년차 성도이자, 우리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박순남 권사입니다.

2. 권사님께서 주님을 믿게 된 그 시작을 말씀 해 주세요.

결혼하고 당진으로 이사 와서 조재숙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당진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전엔 신앙의 경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어릴 적 2박3일 동안 동네 교회에 대학생들이 와서 성경학교 간 것이 다예요. 구원 열차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3. 슬하에 자녀를 셋을 두고 계신데요. 막내 원준군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또 낳으셨을까요?

더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8개월 동안 딸인 줄~ 임신하고 바로 심방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아들이라고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8개월 동안 안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는 원준이가 나왔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4. 부군 되시는 장준계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말썽꾸러기 연하남 이에요.^.^ 살살 웃어가며 속썩여주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확고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5. 두 분의 러브스토리를 디테일하게 이야기 부탁드려요.

서울에서 미용사 시절에 손님으로 오셔서 만났고, 신랑이 날 꼬시기 위해 참 많이도 운전하고 다녔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오일을 왔으니까요.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아주버님 차를 가지고 와서는 드라이브 엄청 많이 하고 다녔지요. 그래서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6. 해주양 혜지양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모두 직장인이겠네요.

해주와 혜지는 서울 강남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집은 서울대 앞이고 직장은 강남이에요. 해주는 안과에서 일하고
혜지는 롯데월드에서 교육 받고 있어요.

7. 권사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세요? 자녀들과 함께 있나요?

아님 독립적으로 살고 계세요? 상상 해 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신랑이랑 짝꿍 같이 살다가
혹 혼자 된다면 요양원같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한 할머니라면 단독 지어서 꽃심고 가꾸면서 살고 싶어요.^^

8. 따님들과 그리고 남편분께서 주님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
길 바라실텐데요. ‘표현의 능력을 세우라’ 말씀하신 9월에 이 문제
를 위해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요?

9월 첫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자기야 사랑해~’ ‘원준아 사랑해~’

그리고 딸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문자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엇그제
이번 달 말씀이 뭐라했더라? 라고 묻더라구요. 제가 표현하라는 말씀
이라고 했더니 왜 한번만 하고 마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느꼈더라구요.^^ 표현 많이 하
려고 노력중입니다.

9. 해외여행 가서서 따님들과 다닐 때, 그 먼 타지 이국땅에서 밤을
지내실 때,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많이 고백했구요. 애들한테 고맙다고도 많이 했어요.
남편이 같이 오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어요. 다섯명이 빨리 가족여
행 또 가고 싶어요.

10. 여성으로서 자신을 위한 투자로 성형외과에 다시 가신다면 무
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눈 밑에 처진 지방 애교살 처리하고 싶어
요.^^ 그리고 볼 살이 통통해졌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이 걱정되서
저지르진 못하는데요. 우리 애들 시집보낼 때는 어쩌면 한번 시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11. 갱년기로 들어가고 계신데요. 이 갱년기를 잘 넘기기 위한
권사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즐겁게 살자’ 라는 생각을 해요. 혼자말구 성도와 함께요. 집사님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저기 아픈데 아픈 거는 몸에 좋은 것 많이 먹으려구요. 요즘은 뭐에 뭐가 좋다하면 귀에 쑥쑥 들어오네요.^^

12. 권사님은 어떤 아내세요? 곰보다 여우가 백배 낫다 하는데
권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곰인 듯 곰 아닌, 여우인 듯 여우
아닌-.-.;; 권사님의 일상의 모습이 궁금해요.

저는 여우는 아니고요 곰인데... 신랑이 저보다 더 곰이라....

제가 심한 곰은 아니구나 느꼈어요. 남편이 너무 과묵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곰같은 사람과 살기 때문에 내가 여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13. 주일에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아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만감이 교차하시지요?

그렇죠~

너무 너무 이쁘구요. 눈길만 마냥 아들한테 머물게 되더라구요.

14. 율동헌신예배가 머지않았습니다. 선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율동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권사님은
율동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율동을요,.. 강연순 권사님께서 그만두신 후에 제가 그만 둘
생각 하고 있어요.^^ 강권사님 하실 때까지는 헌신예배 때 한두 곡
쯤은 늘 하고 싶어요.

15. 주일날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자주 보아요. 어떤
생각에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지요?

저는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내려가면 주방부터 먼저 보게 되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분인지 체크하게 되요. 사람이 없으면 주방 일을 돕고 밥을 먹어요. 그래야 마음이 좋더라구요.

16. 전에 구역장으로서 오래 사역하셨는데요. 그 사역에 대한 권사님의 깊은 생각이 궁금해요.

처음에 사명 주셨을 땐 뭣 모르고 하다가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 욕심이 났어요. 먼저 공부해야 하니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했는데요. 오십 넘어가니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되었지요.

17. 권사님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을 드릴까요.
자신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나의 점수는 중간점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빨리 가고 싶지 않고 너무 천천히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빨리 가면 교만해 질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쫓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이 좋아요. 점수도 중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 왔어요.

18. 젊으신 나이에 권사 직분을 받으셔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요?
그 직분 어떻게 감당해 오고 계신지요?

직분 받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사택으로 오라 하셔서 질문하실 때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지요. 한 일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무게감에 짓눌리게 되더라구요... 사탄이 틈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힘들더라구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늘 내가 권사로서 본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 많이 들구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 항상 해요. 딱 생각이 들 때면 이러면 안되지 돌이키고 추스르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제게 있어요.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19. 남편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장 ~ 장준계씨

준 ~ 준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계 ~ 계속 고집부리고 교회 안 나오면 천국 못갑니다

나의 친구 송!!

이렇게 지면으로 너를 대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20년은 족히 넘은 것 같네. 고등학교 때는 장문에 편지도 때로는 짧은 쪽지도 자주 주고받곤 했었는데... 뒤 돌아보니 이 또한 추억으로 묻혀 버려 있었음에 가슴 한켠이 아련해 진다. 오랜만에 옛날을 추억하며 또 '표현의 능력을 키우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자니 무척이나 쑥스럽고 잊고 있던 많은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 한동안 깊은 사색에 머물러 있었다.

미숙아~

짧지 않았던, 어찌 보면 꽤 길었던 지난날들을 내 친구로 있어줘서 고마워. 또 믿음의 동역자로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서 고마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나를 다시 자녀로 불러 세워 주셨고 또 너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고마워.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지내왔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네가 나를 두고 떠나기로 예정되었을 때 처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과 허전함이 시간이 더하여질수록 진해지고 벌써 네가 그리워진다.

나의 마음이 이러하듯 너 또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잘 알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곳 동탄에서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건강한 교회 만나서 가족 모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기를...

아이들 학교생활 잘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믿음 있는 좋은 친구들 만나 행복 할 수 있길... 너도 주변에 아는 이 없으니 많이 쓸쓸하고 외로울텐데 좋은 이웃 만나 즐겁게 생활 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친구 송미숙 권찰님!!

앞으론 우리가 멀리 있어 지금처럼 자주보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네 편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나 또한 네 편이란 것 잊지마~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너를 기억하며 네 곁에 있을게^^

잘가 친구~~

고마웠고 사랑해^^



웃으십시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지요.

요즘은 예쁜 아기들도 많아 서로 경쟁하듯 한번씩 아기들의 손이라도 잡아보고 안아도 주며 재밌는 담소를 잠시 나누고 점심 식사를 하곤 합니다.

점심 식사 전 짧은 이야기의 시간에 현관 카페에는 맛난 간식들이 테이블에 곱게 차려집니다.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이 간식 맛보지 않은 성도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도 즐겁게 한 컵씩 담아 챙겨가고 어른들도 몇 개씩 집어 먹으며 작은 틈새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누가 이렇게 수고를 마다 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는지는 모두들 아시지요? 바로 이종희 집사님 이십니다. 교회 성도들의 즐거운 휴식을 위하여 카페를 오픈하고 지금까지 기쁘게 봉사 해 주시는 참으로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는 더욱 어여쁜 집사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팔빙수와 슬러쉬로,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손수 팝콘 기계를 장만해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보다 더 맛있는 팝콘도 튀겨 주십니다. 성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커피머신의 청결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늘 신선한 아이디어와 선행하는 착하고 충성되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이런 집사님의 수고를 눈여겨보실 것이며 많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운 이 일들을 그 작은 몸으로 거뜬히 감당 해 내시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열매 맺겠습니다.

한나여선교회

김학순 권찰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 이주희 동생을 주시옵소서~

강연순 권사님

은선이와 종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덕규 권사님

자녀 구원을 소망합니다. 손녀 아린이 손자 재윤이 주일학교에 나와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남현 집사님

종호와 종성이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강건함이 풍성하여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더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강난순 권사님

허리 협착증으로 힘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자 권사님

큰 아들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두식이 가정에 새 생명의 은총과 직장에서 정직원이 되길 원합니다.

김종숙 권사님

영혼구원의 풍성한 열매와 온전한 심일조 축복이 엄청 큰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강유순 권사님

아들 한성호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새로운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릴레이

구옥순 집사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종매는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 이리도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광고가 나왔을 때 정말 싫었습니다. 완전 싫었습니다. 왜?? 나는 운동을 싫어하니까!!! 지독하게도 운동을 싫어하니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 라켓을 손에 잡았고, 딱 한번~ 그것도 한 20분 치고 팔 아프다고 보름 이상을 쉬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라~ 좋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시작된 배드민턴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배드민턴에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땀이 훌쩍 젖을 만큼 땀을 흘리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지는 것을 느낍니다. 40대의 끝자락에서 새삼 운동의 맛을 알게 되고, 매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 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도 감사드릴 뿐입니다. 더욱 더 건강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다음 주자로는 **송미숙 권찰님**을 추천했습니다.

한 해를 같은 구역으로 생활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송미숙 권찰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25:13”

‘추수날에 얼음냉수 같은 사람’

어느 사람은 시키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은 시킨 일만 합니다. 하지만 권찰님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데~~ 정말 보내기 싫은데~~ 간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성경 숨은그림찾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 13장 1-2절)
(숨은그림 : 이스라엘 12정탐군, T셔츠, 화분, 신발, 수화기)

* 너는 나를 아느냐

- essay.3 -



nooriart@naver.com

*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로마서 2장 24절)

퍼즐

¹ 여					⁵		
					⁴		⁶
							⁶
¹ 아		²			⁵		
	²		³				
			³	⁴			

가로

1. 믿음의 조상
2. 이삭의 아내
3. 위험한 고비나 시기.
4. 도기(陶器), 자기(瓷器), 사기(沙器), 질그릇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5. 중국요리의 하나. 해물을 넣고 끓인 국물에 녹말을 풀어 걸쭉하게 만들어 면을 말아 낸다.
6.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세로

1.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 미리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연주나 방송 따위.
3.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4.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5. 큰자라는 뜻을 가진 서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꾼사람
6. 하나님께 회개및 간구등 을을 하는 행위

¹ 기					³ 술	³ 로	몬
¹ 다	윗		² 우			봇	
림		² 송	리				
			아				
					⁶ 정	⁵ 직	
⁴ 속	임	⁴ 수				⁷ 사	랑
		제				⁶ 각	
	⁵ 므	비	보	셋		형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더워더워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제는 날이
제법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그 어느 때 보다 건강이 중요하겠지요. 리기도 하고 한 발로 서서 중심잡기, 페트병 맞춰서 쓰러트리기가 진행되었는데 더위에 끄떡없이 어찌나 즐겁게 참여 하는지 더위에 허덕이며 그들을 찾던 저의 체력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그리하여 이번 9월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주 주일 삼부 순서는 아이들의 체력을 알아보는 체력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연훈 청년의 지도하에 4가지 종목으로 테스트를 진행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아이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 힘을 다해 매달하는 햄버거였는데요. 햄버거보다는 그걸 먹은 후 마신 탄산을 더 좋아 했다는 건 비밀 아닙니다.

첫 주에 몸의 건강을 체크해 보았다면 이번 둘째 주는 먹거리로 건강을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경단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떡 반죽을 주물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후 원하는 속 재료를 넣어 주고 그 위에 카스테라 가루를 고루 입혀서 입속으로 썩~ 달달한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제각각 자신의 개성을 살려 만든 경단 일부는 맛있게 먹고 일부는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 갔구요. 또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나누어 드렸는데요.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첫 주와 둘째 주에 몸에 건강을 챙겼으니 셋째 주는 우리가 무엇을 건강하게 채워야 할까요 ??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인데요. 성경읽기가 아닌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년별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외워 암송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며 영의 건강을 튼튼하게 채웠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해 많은 구절을 외운 친구들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어떤 선물이 준비될지 궁금해집니다.

넷째 주는 대예배를 함께 드리다보니 삼부순서가 없었어요.

이번 달은 5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부모님 초대 예배가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 하셔서 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소통을 이루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알차고 즐거운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달도 잘 마무리 해 나아가는 다니엘 유초등부가 될 수 있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복 전통 VS 편의성

최근 한복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성이나? 아니면 편리성이나? 를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으로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그 모양도 입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한복은 예쁘면서도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한복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본연의 전통 한복 보다는 생활한복의 인기가 좋아 전통성이 없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신경 써서 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입장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요. 옛날 임금들이 살던 궁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복의 정통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전통한복이 아닌 개량한복을 입고 출입 시 입장료를 걸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예배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때면 교회 분위기도 한층 새로워지면서 성도들끼리 한복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감탄과 웃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복 입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성을 지켜야하고 보존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일에 먼저 나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과 복장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화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면 이것은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크나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위의 점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주님의 것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이신에 성도 (3번) -

1. 100% 2. 75% 3. 40% 4. 25%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조은희 권찰

신앙서적 읽기와 기도모임 주 1회 이상 참석을 결심합니다.

말(言)이 주는 힘

시기는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귀국 즉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

보고 싶다며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팔과 눈을 하나씩 잃었어요. 그와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까요?”

“글쎄다 아들이야.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찌면 몇 달도.... 그러나 평생 그럴순 없지 않겠니?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그런 장애인을 언제까지나 함께 데리고 살순 없을 거야~ **괴로운 짐이란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거야~**”

어머니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통화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씩 잃은 바로 그 동료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편의 일기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구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 갔구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밍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터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귤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딸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 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쿵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번도 사 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했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좌판 상이 보이면 꼭 천 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찌다 갈 때는 귤을 상자 째로 사 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 천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 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굴 어디서 샀어요?"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굴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에게도 몇 알 입에 넣어 주구요. 그리고 직접 까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굴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갈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하여 내게로 기대 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 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나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굴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1. 잘못된 워밍업

자동차 운행 전 엔진 열을 빨리 올리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주게 되면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되어 오히려 이상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새 차 길들이기

새 차의 경우 각종 기계 작동부의 맞물리는 부분이 윤활을 받으면서 길들여지는 만큼 최초 2,000Km 이전에는 과속이나 급가속, 급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리막길 기어 중립

연비를 아끼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기어가 중립일 경우 브레이크를 몇 번만 밟아도 진공이 모두 없어져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고 핸들이 잠기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4. 엔진오일 교환 주기

많은 분들이 엔진오일은 3,000~5,000Km 마다 교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0,000Km 주행 후 교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회전이 많은 시내 운전이나 비포장도로 주행 등 엔진에 무리가 많은 운행이 잦을 때는 5,000~6000Km 주행 후에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ABS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는 만능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ABS 브레이크가 제동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도로에서는 일반 브레이크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제동시에 차량의 회전을 방지해 주는 것이 ABS 브레이크의 역할입니다.

6. 차량 충돌 시 에어백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자동으로 터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에어백은 일정 속도 즉, 40km 이상 속도에서 충돌할 때만 작동합니다. 또 차체를 중심으로 15도 바깥에 충돌이나 보닛이 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어백 센서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동으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7. 광폭 타이어

광폭 타이어는 무조건 좋다??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 코너링 등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고 일반 도로에서 제동력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빗길에서는 오히려 수막현상이 잘 발생하게 돼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또 엔진 출력과 조향성, 승차감이 떨어지고 변속기가 무리가 발생돼서 연료 소모가 순정 타이어보다 심합니다.

8. 에어컨 냉각 가스

에어컨 냉각 가스를 매년 주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3년에 1회 정도 가스를 주입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스가 새는지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배터리 방전

배터리 방전이 잦으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나빠서 방전이 자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터리보다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교체 전에 전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엔진룸 물 세차

엔진룸 세차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엔진룸의 물 세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 엔진은 전자식 연료제어 방식이라서 배선 전류량과 저항까지 자동 제어되는 매우 민감한 기계입니다. 엔진룸을 청소 하실 때에는 마른 헝겊으로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시사용어 Briefing

1. ITC(국제무역위원회)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구다. 미국 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판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2. 블랙스완(Black Swan)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사건을 말한다. 월가에서 투자분석가로 활동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출간한 "검은 백조 (The Black Swan)"라는 책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이 용어는 진귀하거나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현상들을 뜻하게 됐다.

블랙스완의 존재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반드시 옳지는 않으며, 과거의 사건을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3. 액면분할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천 원짜리 주식 1장을 5백 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4. 회색코뿔소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베레스(Perez)

뜻 : 터짐

[1] 유다와 다말의 아들, 세라와 쌍둥이. 유다 지파 베레스 사람의 조상

[2] 마길의 아들(Peresh)

베레스는 "터지고 파괴된다"는 뜻이요 세라는 "바위"라는 뜻이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불의의 자녀로 쌍둥이 형제였다. 결국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합하여 5형제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 5형제는 일평생 유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정상적인 쌍둥이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칼뱅은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사건을 되새기게 한 것으로 설명한다. 쌍둥이를 낳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나 놀랄만한 일이요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베레스와 세라는 그 본인들에게도 사생아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이며 어떤 면으로는 부자유스러운 정신적인 억압이 일평생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말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는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 네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지니고 살게 만들었다. 이들 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이었으나 철이 들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부터는 함께 어울려 살기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여서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는 편이었다.

그러므로 베레스와 세라는 한 혈통에 소속되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종족을 만들어 베레스 종족과 세라 종족의 조상으로 각기 부족을 이루었다. 이는 혈통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으며 한 부족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려 하였다.

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실이 온 가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 주었다. 근신하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명으로 고통 받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자.

◎ 이달의 교회소식

1. 권찰회 헌신예배 / 10월 7일 오후 7:30
2. 특별새벽기도회 / 10월 8일~12일
3. 야외예배 / 10월 14일 오전 10시
4. 교회창립25주년주일 / 10월 21일
5. 만찬식 / 10월 21일 오후 5시
6. 가을대심방 / 10월 22일~11월 12일
7. 율동단 헌신예배 / 10월 28일 오후 6시

◎ 공지사항

1. 10월 생활실천표어 / 네 소망을 주께 아뢰라
2. 10월 신앙서적 / 크리스천, 책임을 생각한다

◎ 이달의 교우소식

1. 이사 / 송미숙권찰 가정 - 10월 8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 : 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